

내시경적 비전형적 궤양성 대장염의 임상양상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정진^{*}, 김효종, 동석호, 김병호, 장영운, 이정일, 장린

배경 : 궤양성 대장염은 일반적으로 직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연속적이고 "skip area"가 없는 염증성 장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수의 환자에서 직장에 염증이 없는 형태나 skip area가 있는 형태 또는 국소적으로 맹장부위에 염증이 동반되는 비전형적인 소견이 발견된다. **대상/방법 :** 1992년부터 1999년 6월까지 전대장내시경을 시행받고 내시경소견 및 조직소견으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던 환자 136명중 비전형적 소견을 보인 19예(13.9%)에 대하여 병변의 범위, 질병의 활성도, 치료에 대한 반응 및 경과등을 의무기록을 토대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 19예중 타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거나 본원에서 치료후 비전형적 소견을 보인 6예는 제외하고 처음 진단된 13예(9.6%)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남자 6명, 여자 7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4.4세였으며 평균 추적기간은 2.95년(4개월-7년)이었다. 맹장의 국소적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가 8예였고 직장이 보존된 경우(rectum sparing ulcerative colitis)가 3예, 그외에 다른부위의 skip area가 있는 경우가 2예였다. 내시경적으로 국소적으로 맹장만을 침범한 모든 중례에서 분명한 궤양성 대장염의 조직소견을 보였고, 직장이 보존된 3중례중 1예에서는 정상 조직소견을 보였으나 재발시 전형적인 궤양성 대장염의 소견을 보였고, 1예는 국소적인 음와농양과 비틀림이 보였고, 부분적인 만성염증세포의 침윤이 있어 처음에는 정상으로 판독했었다. 나머지 1예에서는 처음부터 전형적인 궤양성 대장염 소견을 보였다. 반면에 치료후 직장이 보존된 형태를 보인 2예에서는 모두 조직학적으로는 전형적인 궤양성 대장염 소견을 보였다.

		patchy cecal inflammation	rectum sparing UC	skip lesion
disease activity	mild	4	0	0
	moderate	3	3	0
	severe	1	0	2
good response		5/8	1/3	1/2
progression to pancolitis		1/8	2/3	0/2
extent		subtotal colitis-----1	pancolitis except rectum-----3	1.skip transverse, sigmoid colon
		proctosigmoiditis-----2		2.skip transverse, ascending colon
		proctitis-----5		

결론 : 대상환자 수가 적어 통계치리는 하지 않았으나 국소적인 맹장부위의 염증은 궤양성 직장염등 병변의 범위가 좁은 경우 빈번히 발생하였고 치료반응이 좋았으며 병변의 확장도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크론병의 임상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류봉춘^{*}, 김영호, 이상수, 문원, 이경수, 손희정, 이종철, 김재준, 고광철, 백승운, 이종철, 최규환

배경 및 목적 : 크론병은 많은 합병증과 같은 재발로 인하여 치료하는데 난점이 많은 염증성 장질환으로 서구에서는 크론병의 임상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국내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크론병 환자에서의 임상상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 외국에서의 보고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4년 10월부터 1999년 7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 받은 크론병 62예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지 열람과 전화대담을 통하여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 1) 평균연령은 남자가 29.8세, 여자가 28.5세였고 남녀 비율은 1.7:1로 남자가 더 많았다. 2) 자각증상으로 가장 흔한 것은 복부 동통이었으며 설사, 소화 불량, 상복부 불쾌감, 배변 습관의 변화, 발열, 혈변, 변노 등을 볼 수 있었다. 3) 항문 주위 병변은 36%에서 관찰되었고, 이중 치루가 72%로 가장 흔하였으며 그 외 치열, 항문 주위 농양, 항문 협착 등이 관찰되었다. 4) 장관 외 증상은 37%의 환자에서 나타났으며, 가장 흔한 것은 관절 증상으로 43%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 소수에서 구내염, 피부증상, 안증상이 동반되었다. 5) 병소의 분포는 소장과 대장을 침범한 군이 66%를 차지하였고 대장만 침범한 군(23%)이 소장만 침범한 군(11%)에 비해 많았다. 6) 최종진단 전에 항결핵제를 복용한 경우는 28예로 45%에 달했다. 7) 크론병의 발현양상별로는 염증성 형태가 71%로 가장 많았고, 협착성 및 누공성 형태는 각각 14.5%였다. 8) 임상 경과 중 수술이 필요했던 경우는 총 31예로 농양 및 장루 등의 누공성 합병증에 의한 경우가 48%, 협착에 의한 경우가 32%, 진단이 모호한 경우가 20%를 차지하였다.

결론 : 국내에서의 크론병은 외국의 환자와 비교하여 대체로 임상상에서의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으나 진단에 있어서 장결핵과의 감별이 중요하리라 사료되며 향후 한국에서의 크론병의 임상상을 규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